

지카마쓰 후기 작품군에 대한 고찰

한 경 자
(경희대학교)

I. 들어가며

지난 4월 17일,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수 도널드 킨(Donald Keen)¹⁾이 일본에 영주하기 위해 일본국적 취득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는 이미 수년전부터 1년의 반을 일본에서 지내왔는데, 정년을 앞둔 4월말 콜롬비아대학에서의 최종강의를 마치고, 지진재난으로 상처입은 일본을 격려하기 위해, 일본에 영주할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²⁾

그는 일본학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학자로 일본역사, 일본문화전반에 걸쳐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며, 번역을 통해서 많은 일본문학을 해외로 소

* 본 논문은 2011년 6월 3일 개최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에서 「전지구화시대 동아시아문화론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가필 수정한 것이다.

- 1) 1922-.미국의 일본문학, 문화연구자, 문예평론가. 콜롬비아대학 명예교수. 『일본문학사』(전8권) 등의 저서를 통해 일본문화를 서구에 소개한 업적이 많으며, 일본정부로부터 문화훈장수여, 미해군 일본어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 훈련을 받고 정보사관으로서 통역관을 역임. 일본문학, 문화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력을 지닌 연구자로, 2006년에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1000년을 기념한 <源氏物語千年紀>의 발기인, 지카마쓰 탄생350주년 기념 <近松祭> 기획 실행위원회 고문을 역임하는 등, 일본학계에서 해외연구자대표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 2) 2011년 4월 6일자 아사히(朝日)신문 기사.

개하는 역할을 하여, 그 공로로 2008년에 일본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근세 희곡³⁾작가인 지카마쓰 Monzaemon(近松門左衛門⁴⁾)의 작품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깊은 외국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카마쓰의 작품 중 『소네자키신주(曾根崎心中)』⁵⁾에 대해서는 남녀주인공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묘사한 ‘미치유키(道行)’ 문장을 일본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평하고, 지카마쓰의 비극을 셰익스피어 비극과 비교하며 인물조형과 작극법을 분석, 설명하여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지카마쓰 작품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서양에서의 일본근세희곡 번역상황을 『소네자키신주』에 한해서 보면, 앞서 언급한 도널드 킨의 번역에 앞서, 이미 1955년 영국에서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지에서 10여 편이 번역 출판되고 있다. 지카마쓰 작품 전체에 대해 말하면 약 90편 이상이 서양에서 번역이 이루어져 있으며,⁶⁾ 그 외의 일본근세희곡작품을 포함하면 100편이 넘을 정도로 번역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소네자키신주』는 2000년과 2005년에 공연된 적이 있으며, 번역도 되어 있는 등, 일본고전예능 중에서는 비교적 알려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錢稻孫, 方月備, 李國勝 등에 의해 수차례 번역된 바 있었고, 1988년 무한(武漢)의 지방극인 한국(漢劇)으로 각색되어 상연되기도 하는 등,⁷⁾ 번역과 공연이라는 외국연극(희곡)으로서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동시대 연극으로서 중국연극과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⁸⁾

3) 17세기를 전후하여 성행한 인형극인 인형조루리(淨瑠璃, 후에 분라쿠(文楽)라고 불림)과 연극인 가부키(歌舞伎).

4) 일본을 대표하는 근세희곡작가. 이하, 지카마쓰로 표기.

5) 실제로 소네자키술에서 일어난 남녀의 동반자살을 소재로 만들어진 조루리 작품.

6)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일본문학번역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의함. 단, 일본어와 알파벳으로 표기된 2차대전후의 번역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7) 1988년에는 일본에서도 상연되었고, 1991년에는 북경에서도 상연되어 호평을 받음.

8) 李國勝「中国古典劇『曾根崎殉情』の形成過程-文学脚本から演出脚本へ」『同志社国文学』(39)1993.12, 向井芳樹「北京の『曾根崎心中』」『同志社国文学』(36),1992.3

세계2차대전이후의 적극적인 해외공연활동과 2000년대에 들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⁹⁾ 일본전통예능문화에 대한 해외홍보가 활성화 되었다. 2001년 런던에서 『소네자키신주』의 가부키공연을 한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¹⁰⁾는 "세계성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공연이었다"고 공연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연극의 관객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부키를 보러", "세익스피어에 필적하는 동양의 작가 지카마쓰를 보러" 와서 무대를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¹¹⁾

지카마쓰의 가부키를 '세계성'이란 말로 수식할 수 있는 데에는, 그 동안 영국에서는 지카마쓰를 비롯한 일본고전연극에 대한 번역, 연구의 기반이 다져져 있어서, 세계연극으로 감상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의 일본근세연극에 대한 번역, 연구는 연구기간도 짧고, 연구자층도 얇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덕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외국연구자와 정보교류가 편리해진 국제화시대에 더욱 연구의 국제화가 촉진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1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연구는 한국의 일본(근세)문학연구자(일본의 근세문학연구자도 해당)가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취급하고 있지 않아, 연구동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현상황에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에 한국과 서양에서의 번역상황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에 따른 연구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일본연구, 일본근세연극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서구와 한국의 연구현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9) 조루리(분라쿠)는 2003년, 가부키는 2005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정식 등록된 것은 2009년.

10) 당시는 나카무라 간지로(中村雁次郎). 2005년에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를 습명.

11) 「対談『曾根崎心中』をめぐる—近松を演じて」『国文学 近松人形浄瑠璃と歌舞伎の劇場空間』2002년 5월, pp.6-12

12) 『일어일문학연구』2003.5

II. 미국·유럽에서의 가부키·조루리 연구 현황

1. 세계2차대전 종전이전(-1945)의 연구

일본근세연극에 대한 유럽에서의 관심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화인 우키요에(浮世繪)를 계기로 1860년대를 전후해서 자포니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키요에 의한 장르인 가부키배우그림(야쿠샤에; 役者繪)으로부터 가부키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후, 무대를 직접 관람한 것은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島)에 설치된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사무소인 네덜란드상관 관련 인사들이다.

나카무라 데쓰로(中村哲郎)에 의하면, 가부키를 처음 본 서양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감상 후 기록을 남긴 것은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라고 한다.¹³⁾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상관의 의사로 나가사키에 거주한 스웨덴의 식물학자 쾨베르크(Carl Peter Thunberg)는 상관장의 에도참부(江戸参府; 장군알현)과정에 동행하면서 가부키를 보았는데, 의상도 동작도 모두 골계적이었다는 부정적인 평을 하고 있다. 지볼트의 권유로 가부키를 감상한 사람으로 독일인 의사 엘빈 벨츠(Erwin von Bälz)가 있다. 그는 쾨베르크와 지볼트와는 달리, 메이지(明治)정부로부터 초청받아 지금의 도쿄대학(東京大学)의 교수로 고용된 소위 '고용외국인(お雇い外国人)'이다. 그의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지시대에는 가부키감상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광코스¹⁴⁾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¹⁵⁾. 이들 네덜란드상관장 주재원들과 고용외국인들은 일본이 서양문물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일본고유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미술·공예품을 수집, 보존하는 데에 힘썼으며, 이 시기 서양의 일본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⁵⁾

1920년대의 연구로는 "Recent Accessions of Japanese Prints"¹⁶⁾,

13) 中村哲郎 『西洋人の歌舞伎発見』、劇書房、1982

14) 『ベルツの日記〈上〉〈下〉』岩波書店、1979

15) 예를 들어 벨츠의 컬렉션은 독일 슈트가르트(Linden-Museum)에 소장.

16)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 18, No. 108 (Aug., 1920), pp. 38-44

"Japanese Actor Prints" 17)와 같은 가부키배우를 그린 우키요에에 관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이 기사들은 세계적으로 굴지의 우키요에소장미술관으로 평가받는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과 시카고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소장되고 있는 우키요에에 관한 소개, 해제이다. 보스턴미술관의 일본미술컬렉션은 에드워드 모스(Edward Sylvester Morse)¹⁸⁾, 어니스트 페노로사(Ernest Francisco Fenollosa)¹⁹⁾, 윌리엄 비게로(William Sturgis Bigelow)²⁰⁾ 등 고용외국인으로 일본에 와 있던 학자들이 수집한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페노로사의 영향으로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이 미술관 동양관담당자로 부임하게 되었고, 일본문화를 보존하고 해외에 알리는 데에 진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Japanese Actor Prints"라는 논문은 시카고 미술관의 버킹엄 컬렉션에 대한 해제 기사이다. 이곳에는 실업가 클라런스 버킹엄(Clarence Buckingham)과 동생이 모은 우키요에 16000여장이 기증되었는데, 보존상태가 좋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버킹엄이 우키요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93년 시카고만국박람회였다. 시카고박람회에는 오카쿠라 텐신을 비롯한 일본미술계인사들을 박람회사무국에 배치하여, 일본미술학교와 제국박물관이 직접 전시방법, 작품선정 등을 하여, 중국과는 다른 일본고유의 문화를 미국에 보여주려 노력을 한 박람회였다. 파리박람회가 그랬듯이 박람회는 일본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문화홍보에 이용하였다.

30년대에 들어서도 가부키 연극자체보다, 배우를 소재로 한 우키요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프레데릭 구킨(Frederick W. Gookin)은 "A Notable

17) *Bulletin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Jan., 1924), 그 외에도 "The Surviving Works of Sharaku" Helen C. Gunsaulus, *Bulletin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Feb., 1940), pp. 27-28 등이 있다.

18) 미국 동물학자, 도쿄대학교수역임. 일본의 민예품, 도자기를 수집.

19) 미국 동양미술사가. 모스의 소개로 도쿄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침. 일본체제 중에 일본미술행정, 문화재보호행정에도 관여했을 뿐 아니라, 귀국후에도 보스턴 미술관 도양부장으로 재직하며, 일본미술을 소개하는 데에 힘씀.

20) 미국 의사. 일본미술연구가. 보스턴미술관의 우키요에 컬렉션 중 반 이상을 그가 수집한 것이 차지.

Addition to the Buckingham Collection"²¹⁾에서 버킹엄 컬렉션에 대해, 고지로 도미타(Kojiro Tomita)²²⁾는 "A Special Exhibition of the Works of Sharaku"²³⁾에서 1939년 12월부터 1940년 1월에 개최된 샤라쿠(写楽)의 우키요에 전시회에 임하여, 전시회의 배경과 작가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다. 그 외에 "Notes on Japanese Literature"²⁴⁾에는 우키요에는 아니지만, 대사관소속 육군대위 에버러드 칼스롭(Everard Ferguson Calthrop)이 일본체재 중에 수집하여 SCHOOL OF ORIENTAL STUDIES LONDON INSTITUTION에 기증한 책²⁵⁾에 대한 설명과 함께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20,30년대까지의 서양에서의 일본근세연극에 대한 관심은 일본체재인들이 수집한 그림에서 비롯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단순히 수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분석, 정리, 목록작성, 전시, 보관 등에도 힘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외, 독일문학연구가이자 연극평론가인 가토 마모루(加藤衛)가 독일연극이 일본희곡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일본연극에 대한 참고문헌을 리스트화한 "Das Deutsche Drama auf der japanischen Buhne"²⁶⁾ "Zur Bibliographie des Japanischen Theaters"²⁷⁾와 같은 논문들을 집필하고 있다. 이들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Monumenta Nipponica*인데, 이것은 일본의 조치대학(上智大学; Sophia University)이 일본으로부터 세계로 일본학연구업적을 발신하고자 1938년에 창간한 학술지였다. 마침 중일전쟁발발직후로 아시아침략에 의해 악화된 일본 국가이미지개선을 위해 국가홍보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1934년에는 일본최초의 국제문화교류기관인 국가문화진흥회(KBS)가 창설

21) *Bulletin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Nov., 1934), pp. 77-82

22) 도미타 고지로(富田幸次郎, 1890-1976)는 오카쿠라 텐신의 제자로 이미 10대부터 보스턴미술관에 재직하였고, 1931년부터 동양부장을 역임함.

23)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Dec., 1939), pp. 115-117.

24) S. Yoshitak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4, No. 4 (1928), pp. 679-688.

25) 대사관소속 육군무관으로 도쿄에 주재했던 Everard Ferguson Calthrop (1876-1915)의 컬렉션.

26) *Monumenta Nipponica*, (Jul., 1940), pp. 427-444.

27) *Monumenta Nipponica*, (Jul., 1940), pp. 665-668.

되었고, 그 출장기관으로 1938년 미국 뉴욕에 '일본문화회관(Japan Institute)'이 설립되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의회도서관, 예일대학, 하와이대학, 콜롬비아대학, 하버드대학에 일본도서가 다수 기증되었는데, 이는 미국내의 일본연구소, 일본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여 추진된 것이며, 일본학형성의 기초가 되었다.²⁸⁾

특히, 세계2차대전 종전 이전에는 해외에서 일본근세연극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도서를 수집하여 일본학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쓰노다 류사쿠(角田柳作)²⁹⁾의 경우는 제자 도널드 킨과 같은 일본문화연구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상대인 일본연구를 위해 군으로 동원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종전 후에도 일본연구를 지속하여 일본연구의 제 1세대가 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2. 세계2차대전 종전후(1945-)의 연구

전후인 50년대에는, 연합국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and 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에서 가부키 등 연극에 대한 검열을 담당했던 포비언 바워즈(Faubion Bowers)³⁰⁾의 *Japanese Theater*³¹⁾, 얼 언스트(Earle Ernst)³²⁾의 *Kabuki Theatre*³³⁾가 출판되었다. 전후 GHQ는

28) 和田敦彦「書物という架け橋-角田柳作と早稲田大学図書館-」、早稲田大学第10回図書館総合展 (Library Fair & Forum 2008)

29) 콜롬비아대학에 일본도서관을 창설하고 일본도서수집에 진력. 후에 C.V. Starr East Asian Library로 일본, 한국, 중국 관련저서를 다수 보유하는 유수의 동아시아관련도서관의 기초를 다짐.

30) 1917-1999.미국 음악가, 군인.

31) Hermitage House, 1952.

32) 1911-1994. GHQ/SCAP 민간첩보국·검열부 (CCD: Civil Censorship Deattachment)에서 가부키검열담당. 귀국 후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연극학교수. 가부키 극장에 관심이 많았으며 가부키무대를 재현하기 위한 Kennedy Theatre를 설립.

33) Grove Press. NY, 1956, 후에 (East West Center Book)Univ of Hawaii Press, 1974.

봉건사상에 대한 찬미가 된다고 하여 가부키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가부키 중, 주군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한 내용이 있는 것들을 검열, 금지하여 가부키가 소멸될 위기에 놓였었다. 포비언 바워즈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부키 공연의 재개를 호소하여 '가부키를 살린 남자'로 알려져 있다.³⁴⁾

선교사가정에서 교토(京都)에 태어나, 제2차대전 중에는 해병대에서 일본 어교관을 지냈던 도널드 샤이블리(Donald H. Shively)³⁵⁾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Chikamatsu's Satire on The Dog Shogun"³⁶⁾, "Bakufu Versus Kabuki"³⁷⁾ 와 같은 논문을 내놓았다. 전자에서는 『사가미유도센비키노이누(相模入道百匹犬)』에 나타난 쇼군(將軍) 쓰나요시(綱吉)의 풍자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막부의 제약이 오히려 극으로서의 가부키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년대에는 도널드 킨에 의한 *The Battles of Coxinga: Chikamatsu's Puppet Play, Its Background and Importance*,³⁸⁾ 샤이블리에 의한 *The Love Suicide at Amijima (Shin fi Ten no Amijima): A Study of a Japanese Domestic Tragedy by Chikamatsu Monzaemon*.³⁹⁾ 등, 지카마쓰의 작품에 대한 해제와 번역이 나오기 시작한다. 포비언 바워즈를 비롯 전쟁에 동원되었

34) 岡本嗣郎『歌舞伎を救ったアメリカ人』集英社、2001、p.10, Samuel L. Leiter역 *The Man Who Saved Kabuki: Fabion Bowers and Theatre Censorship in Occupied Japan*, Univ of Hawaii Press 2001,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로는 상사였던 Earle Ernst의 업적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꾸짖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5) 1921-2005. 에도시대 문학, 문화, 도시역사연구가, 번역가. 전후 일본학 발전에 기여.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는 일본학학술지의 발행을 둘 수가 있으며, Far Eastern Quarterl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Harvard Journal for Asiatic Studies의 편집장을 역임. 일본으로부터 훈장수여. Edwin A. Cranston "Donald Howard Shively (1921-200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6, No. 4 (Nov., 2007), pp. 1232-1234.

36)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Jun., 1955), pp. 159-180.

37)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Dec., 1955), pp. 326-356.

38) Cambridge Oriental Series No. 4. London: Taylor's Foreign Press, 1951.

39) Harvard-Yenching Institute Monograph Series, Volume x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이후 *Michigan Classics in Japa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 1991)로 재판.

던 사람들이 복귀하여, 본격적으로 일본문학(희곡)연구를 시작하며, 그 업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60년대에 들어서자 가부키를 희곡으로서만이 아니라 연극으로 바라보는 논문이 나오게 된다. 레오나르도 프론코(Leonard C. Pronko)의 "Kabuki and the Elizabethan Theatre"⁴⁰⁾와 사무엘 라이터(Samuel L. Leiter)의 "The Depiction of Violence on the Kabuki Stage"⁴¹⁾에서는 가부키에 묘사되는 폭력성(살인, 할복 등)과 과장되고 관능적인 배우의 포즈 같은 정형화된 틀로 되어 있는 동작 요소들은 서양연극을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전 메티소프(Susan K. Matisoff)는 "Nō as Transformed by Chikamatsu"⁴²⁾에서 중세연극인 노(能)가 지카마쓰의 조루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60년대에는 스코트(A. C. SCOTT)의 *The Puppet Theatre of Japan*⁴³⁾, 던(C. J. Dunn)의 *The Early Japanese Puppet Drama*,⁴⁴⁾ 도널드 킨의 *Major Plays of Chikamatsu, introduction and translation*⁴⁵⁾ 등 조루리라는 연극장르에 대한 개설서와 지카마쓰의 대표작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다.

가부키의 첫 해외공연은 1928년의 소련에서 이루어졌다. 전후에는 1955년의 중국공연을 시작으로 60년대 70년대에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등지에서 공연이 행해졌고, 70년대에는 그에 대한 논문, 연극평이⁴⁶⁾ 다수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연이 빈번해짐에 따라 *Studies in Kabuki*:

40) *Educational Theatre Journal*, Special English-Irish Theatre Issue (Mar., 1967), pp. 9-16.

41) *Educational Theatre Journal*, (May, 1969), pp. 147-155.

42)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 (May - Sep., 1976), pp. 201-216.

43) CHARLES E. TUTTLE COMPANY, 1963.

44) Luzac, 1966.

45)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46) Joyce Rutherford Malm, "The Legacy to Nihon Buyō ", *Dance Research Journal*, (Spring - Summer, 1977), pp. 12-24, Jiri Veltrusky, "Puppets for Adults: The Théâtre du Manitous" *SubStance*, Theater in France: Ten Years of Research (Winter, 1977 - Spring, 1978), pp. 105-111.

*Its Acting, Music, and Historical Context*⁴⁷⁾, *Kabuki: Five Classical Plays*⁴⁸⁾, *The Art of Kabuki: Famous Plays in Performance*⁴⁹⁾ 등, 가부키에 대한 개설서도 잇달아 출판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도널드 킨의 제자 로렌스 코민즈(Laurence Kominz)가 가부키 아라고토(荒事) 작품에 대한 논문 "Ya no Ne. The Genesis of a Kabuki Aragoto Classic"⁵⁰⁾과, 가부키 연기동작의 기원에 대해 쓴 "Origins of "Kabuki" Acting in Medieval Japanese Drama"⁵¹⁾, 도널드 킨의 제자이자, 샤이블리의 제자이기도 한 앤드류 거스틀(Andrew Gerstle)⁵²⁾은 "Flowers of Edo: Eighteenth-Century Kabuki and Its Patrons"⁵³⁾에서 가부키배우의 환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의 "Circles of Fantasy: Convention in the Plays of Chikamatsu"⁵⁴⁾는 지카마쓰의 조루리에 대해, 희곡으로서만이 아니라, 음악적 구조, 전형적 양식을 시야에 넣어, 극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가 하는 작극법을 분석을 하는 등, 서양의 연구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가 일본에서 샤미센(三味線) 연주를 배우고, 기다유(義太夫) 창법을 직접 배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제임스 브랜든(James Brandon)⁵⁵⁾의 저서 *Chushingura: Studies in*

47) James R. Brandon, William P. Malm, Donald H. Shively. Uni-versity Press of Hawaii, Honolulu, 1978.

48) James R. Bra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5.

49) Samuel L. Leit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9.

50) *Monumenta Nipponica*, (Winter, 1983), pp. 387-407

51) *Asian Theatre Journal*, (Autumn, 1988), pp. 132-147

52)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연구소(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교수. BA(Columbia) MA(Waseda) PHD(Harvard) 도널드 킨의 제자.

53) *Asian Theatre Journal*, (Spring, 1987), pp. 52-75

54)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6

55)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연극학교수로 Samuel L. Leiter와의 공저로 "Masterpieces of Kabuki: Eighteen Plays on Stage (Kabuki Plays on Stage)"(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Kabuki: Five Classic Plays"(Accepted Into the UNESCO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Works)(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등이 있음.

*Kabuki and the Puppet Theater*⁵⁶⁾와 제클린 물리(Jacqueline Mueller)의 논문 "A Chronicle of Great Peace Played Out on a Chessboard: Chikamatsu Monzaemon's GobanTaiheiki"⁵⁷⁾는 『가나데혼추신구라(仮名手本忠臣蔵)』에 대한 논고로, 후자는 이 작품의 바탕이 된 지카마쓰의 『고반 타이헤이키(碁盤太平記)』에 대해 그 영향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1990년이 후에도 이 소위 주신구라(忠臣蔵)사건에 대해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쓴 『아코의사전(赤穂義士伝)』를 다룬 논문 "The Story of the Loyal Samurai of Akō"⁵⁸⁾ 외에 "The Capacity of Chūshingura: Three Hundred Years of Chūshingura"⁵⁹⁾가 나오는 등, 주신구라는 자주 연구주제로 등장한다.

주신구라 사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초대영국총영사인 러더포드 올콕(Rutherford Alcock)이 부임 직후에 일어났던 외국인인습격 살해 사건과 주신구라 사건을 연관지우며, 아코낭사들의 복수가 영웅담으로 전래되어 모든 일본인의 성격, 사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태라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⁶⁰⁾. 그 외, 일본근세연극 연구에서도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수, 남녀동반자살, 살인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조명하여, 일본인의 독특한 사생관을 고찰하고자 한 논문이 눈에 띈다.⁶¹⁾

셰익스피어와 비교를 한 논문으로는 "Kabuki and Shakespeare:

56) Honolulu: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2.

57)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Jun., 1986), pp. 221-267.

58) Federico Marcon, *Monumenta Nipponica*, Winter, 2003.

59) Henry D. Smith II, *Monumenta Nipponica*, Spring, 2003.

60) 부임한 1859년부터 1862년까지의 3년간의 기록 『大君の都』를 남기고 있다. 山口光朔訳, 『大君の都中』, 岩波書店, 1962, pp.98-99.

61) D. E. Mills, "Kataki-Uchi: The Practice of Blood-Revenge in Pre-Modern Japan" *Modern Asian Studies*(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C. Andrew Gerstle "Hero as Murderer in Chikamatsu" *Monumenta Nipponica*, (Autumn, 1996), Lawrence Rogers "She Loves Me, She Loves Me Not. Shinjū and Shikidō Ōkagami" *Monumenta Nipponica*(Spring, 1994), Steven Heine "Tragedy and Salvation in the Floating World: Chikamatsu's Double Suicide Drama as Millenarian Discours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May, 1994) 등.

Balancing Yin and Yang"⁶²), 소설 유리시즈와 비교한 "The Ulysses Motif in Japanese Literature",⁶³ "Yuriwaka and Ulysses. The Homeric Epics at the Court of Ouchi"⁶⁴) 등이 있다.

최근에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⁶⁵를 습명(襲名)한 배우의 연기와 가미가타(上方)가부키의 부흥에 대해 논한 "The New Sakata Tōjūrō's Grand Kabuki Show and the Rebirth of Kamigata (Kansai) Kabuki"⁶⁶과, "The Tension of Modern Bunraku"⁶⁷처럼, 현대 가부키, 조루리공연에 대한 평론과 같은, 고전으로서가 아닌 현대극으로서 파악하려는 논문도 늘어나고 있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극장연출가인 데오도라 (Theodora Skipitares)의 논문 "The Tension of Modern Bunraku"는 연극에서 실제로 인형을 이용하는 자로서의 고찰이다. 그 외 다케치 데쓰지(武智鉄二)의 현대가부키에 대해 논한 "Artistic Direction in Takechi Kabuki"⁶⁸처럼 가부키에 대해 일본고전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무대예술로서의 감상, 비평으로 시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서 나오는 독특한 시점에 의한 연구로는 제임스 브랜든의 "Myth and Reality: A Story of "Kabuki" during American Censorship, 1945-1949"⁶⁹)가 있다. 이는 GHQ/SCAP의 가부키 검열에 대해 논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포비언 바워즈에 의한 가부키구제(救濟)가 사실은 얼 언스트의 업적이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뒤엎는 내용이어서 특기할 만하다. 그는 그 외에도 *Kabuki's Forgotten War: 1931-1945*⁷⁰) 등 전쟁이라는 상황하에서 가부키가 어떻게 전쟁에 동원, 협력을 했

62) James R. Brandon, *TDR*, Summer, 1999.

63) Esther Lowell Hibbard,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Jul. - Sep., 1946), pp. 221-246.

64) Yoshitaka James T. Araki, *Monumenta Nipponica*, Spring, 1978.

65) 3대 나카무라 간지로가 2005년에, 231년만에 가미가타가부키의 명석인 4대 사카타 도주로의 이름을 계승한 것.

66) Laurence Kominz, *Asian Theatre Journal*, Fall 2006)

67) Theodora Skipitares, *A Journal of Performance and Art*, Jan. 2004.

68) William Lee, *Asian Theatre Journal*, Spring, 2003.

69) *Asian Theatre Journal*, Spring, 2006. 후에 저서로 발간.

는지에 대해 조사, 고찰하고 있는데,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일본에서도 활발해지는 대중예능과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있어, 양국에서의 연구교류를 통한 논의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3. 번역 현황

해외에서의 지카마쓰를 비롯한 조루리, 가부키 작품의 번역현황은 일본국 제교류기금에서 일본펜클럽협회의 협력하에 만든 데이터틀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주로 서구에서 이루어진 번역물 중, 최근 5년 전까지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았다.

지카마쓰 작품에 관해서는 1951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84건의 번역이 있으며, 작품수로는 31개, 세계 10개국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⁷¹⁾. 참고로 같은 시대 소설가 사이카쿠(西鶴)의 작품에 대해서는 1896년 이후 134건, 바쇼(芭蕉)의 하이카이(俳諧)에 대해서는 1949년 이후 158건이다. 근대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경우, 1888년 이후 293건, 현대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경우는 617건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번역은 *The battles of Coxinga: Chikamatsu's puppet play: its background and importance*로 도널드 킨에 의해 1951년에 출간되었다. 가장 많은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남녀동반자살(정사)소재 작품이며⁷²⁾, 그 외, 시대극을 포함 30여종의 작품이 번역되었다⁷³⁾. 그 이후, 1960년대에도 도널드 킨이 *Major plays of Chikamatsu* (Columbia Univ Press, 1961), *Four major plays of Chikamatsu*로 여러

70)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71)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일본문학번역서지 검색 사이트.

http://www.jpff.go.jp/JF_Content/InformationSearchService?ContentNo=13&SubsystemNo=1&HtmlName=search.html(2011년 11월 11일 검색)

72) 지카마쓰의 약 100여 작품 중 11개가 동반자살을 소재로 함. 그 외 당시대의 사건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은 13편이 있다.

73) 지카마쓰의 번역물은 동반자살을 소재로 한 작품군(전체 100여 작품 중 11작품), 당시의 사건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13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번역이 되었고, 그 외 최근에 여러개의 시대물이 번역되어, 총 8작품 번역되었다.

작품을 묶어 번역하였고, 70년대에는 인도(2), 러시아(1), 영국(1), 쿠웨이트(2), 80년대에는 독일, 루마니아(7), 러시아(6), 프랑스(4)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의 번역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 Rene Sieffert(1923-2004) 한 사람이 지카마쓰의 세태물 24작품을 모두 번역한 *Les tragedies bourgeoises, Tomo I-IV*가 1991-1992년에 번역·출판되었다. 그녀는 Strasbourg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다 대학이 세계2차대전 직전 소개(疎開)한 Clermont-Ferrand에서 Charles Haguenaer(1896-1976, 프랑스의 근대 일본학 창시자)를 만나, 비상체제하에서 일본어를 배웠으며, 1946년에 파리 동양어학교(L'Ecole des langues orientales)를 졸업하였다. 50년부터 54년까지 일불회관(日仏會館, la Maison Franco-Japonaise) 연구생과 소장으로서 지냈는데, 이 때 일본민속학의 창시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를 만나 일본무대예술을 접하며, 제아미(世阿弥)의 예능론(能楽論)을 1960년에 "La Tradition secrete du no" 로 번역한 것을 계기로 일본문학전반에 대해 번역을 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번역이 이루어졌고,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Andrew Gerstle이 *Chikamatsu : Five Late Plays* (Columbia Univ Pr, 2001)로 지금까지 번역되지 않았던 후기 시대극 작품들을 번역하였다. 가장 최근에도 로버트 니콜(Robert Nichols)에 의한 번역 *Masterpieces of Chikamatsu: The Japanese Shakespeare* (Routledge Library Editions, 2010)이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널드 킨, 앤드류 거스틀, 보나벤투라 루페루티 등의 연구자들이 번역된 지카마쓰작품을 읽고, 일본회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연구를 한 것처럼 연구인력의 저변확대, 사회환원의 의미로도 번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최근에는 미국, 영국에서도 번역에 대해 연구성과로서의 평가가 낮아 번역의 저조함에 대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⁷⁴⁾.

74) 『世界が読み解く日本-海外における日本文学の先駆者たち』伊井春樹、学燈社、2008、pp.248-250

III. 일본에서의 가부키·조루리 연구 현황

지면관계상 지카마쓰의 연구에 한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지카마쓰에 대해서는 지카마쓰 사망 3년후인 1727년에 간행된 『이마무카시아야 쓰리넨다이키(今昔操年代記)』에서 「작가의 조상신(作者の氏神)」라 칭하는 등, 일찍부터 작가에 대한 평이 평판기⁷⁵⁾ 등을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었다. 지카마쓰 연구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메이지시대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近松之研究』(春陽堂, 1920)가 있다.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지카마쓰연구회는 그 동안 상연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재조명하여,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의 일본에서의 조루리, 가부키연구는 이하라 도시로(伊原敏郎)의 『日本演劇史』(1904), 『近世日本演劇史』(1913), 가요, 연극사연구자인 다카노 다쓰유키(高野辰之)의 『日本演劇史』, 『日本歌謡史』, 『日本演劇の展開』(1932)와 구로키 간조(黒木勘藏)의 『近世演劇考説』, 『浄瑠璃史』 등이 있다⁷⁶⁾. 이들은 연극사 안에서의 지카마쓰에 대한 전기, 작품의 제재와 그에 따른 분류법, 희곡의 형식, 표현양식에 대해서 개괄한 것이다. 지카마쓰 작품 개개에 대한 작품론으로 사카구치 히로유키(阪口弘之)는 시대물과 세태물 작품에 대해 선행예능작품의 변안방법에 분석하며, 일정한 범칙성을 밝혀낸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⁷⁷⁾. 그 외 작품론은 주로 당시의 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세태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왔고, 시대물에 관한 연구로는 우치야마 미키코(内山美樹子)의 『浄瑠璃の十八世紀』(1989)가 조루리를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당시의 정치, 사회와 연관지어, 조루리의 시극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또한, 제본조사, 상연연표, 소재탐구, 개

75) 에도시대에 간행된 여러 사물에 대해 평판한 서적. 유녀, 유곽에 대한 평을 실은 1624년의 유녀평판기를 시작으로, 이후 가부키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판기 등, 인물, 문예, 명물에 대한 평판기가 간행되었다.

76) 그 외, 若月保治『近世初期國劇の研究』(1944), 河竹繁俊, 戸田康二, 渥美清太郎 등을 대표적 근세연극연구자로 꼽을 수가 있다.

77) 「近松の時代浄瑠璃の翻案方法」『谷山茂教授退職記念国語国文学論集』1972. 2, 「近松の素材翻案におけるヒント」『文学研究史』1973.7

작, 번안태도, 취재방법 등의 작품성립론, 상연형식, 단(段)구성, 인형조작법, 다유, 무대구조, 곡조, 드라마성, 인물론, 주제론, 주석, 출판사정, 시대환경 등 폭넓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⁷⁸⁾.

1990년을 전후하여 지카마쓰의 조루리와 가부키의 전 작품(침착한 작품과 추정작포함)과 그 외의 서간과 시작(詩作)을 수록한 『지카마쓰전집(近松全集)』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전기연구가 활성화하였다. 또한, 가부키배우의 일기 『가네코잇코일기(金子一高日記)』가 발견, 소개되면서, 작가 지카마쓰의 일상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조루리를 구성하는 것은 희곡(辭章; 텍스트), 기다유(義太夫; 텍스트를 읊는 다유), 반주악기인 사미센(三味線), 인형, 무대장치인데, 지카마쓰의 작품에 대해 이러한 요소들을 텍스트와 분리하지 않고 무대예술로서 입체적으로 당시의 무대를 연구, 재현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에 기입된 기다유의 예풍(곡풍), 읊기 위한 기호, 가락 등에 대해 음악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이노베 기요시(井野辺潔)의 『조루리사고설(淨瑠璃史考説)』(1991), 야마네 다메오(山根為雄)의 『지카마쓰전집문자보색인(近松全集文字譜索引)』, 「지카마쓰시대의 곡절(近松時代の曲節)」 등의 연구, 인형조정사와 인형의 동작(가라쿠리)에 대한 야마다 가즈히토(山田和人)의 연구와 인형무대사연구회편 『인형조루리무대사(人形淨瑠璃舞臺史)』(1991) 등 무대에 대한 연구 등도 역시 1990년 이후에 활발해졌다.

조루리 흥행에 대한 『방악연표(邦楽年表)』와 『기다유연표(義太夫年表) 근세편』을 보완한 것이 고즈 다케오(神津武男)의 『조루리본사연구(淨瑠璃本史研究)』(2009)이다. 그 외에 조루리책의 출판사정에 대한 나가토모 지요지(長友千代治)의 『근세가미가타조루리본출판연구(近世上方淨瑠璃本出版の研究)』, 에도막부의 검열에 대해 연구하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한 『에도 가부키법령집성(江戸歌舞伎法令集成)』이 있다.

지금까지 제본조사, 공연환경, 관객, 무대장치, 예술론, 인형, 연주자 등의 다양한 방면에 대한 치밀한 연구들의 축적으로 인해, 조루리와 가부키에 대해

78) 阪口弘之, 向井芳樹, 白方勝, 広末保, 近石泰秋, 原道生, 森修, 松崎仁 등이 대표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일본학계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텍스트에 대한 주석과 분석 등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IV. 한국에서의 가부키·조루리 연구 현황

한국에서 가부키, 조루리 등 일본근세희곡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한 것은 하버드대학 한국학과 설립에 공헌하기도 한 서두수이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국문과(일본문학)졸업한 한국인 두사람 중의 하나이며, 조루리연구로 졸업논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⁹⁾

이후, 한국의 일본근세희곡에 대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양적으로도 미약하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 동향을 파악한 『한국 일본문학관련연구문헌일람』(이한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에 따르면, 연구서로는 최관의 『분로쿠 게이초노에키(文祿慶長の役)』(講談社, 1994)가 유일했으나, 그 후, 박찬기의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보고사, 2002), 이준섭의 『주신구라 : 47인 사무라이의 복수극』(살림출판사, 2005)와, 대학교재로서 개론적인 내용으로 근세연극을 다룬 이지선의 『일본전통공연예술』(제이앤씨, 2007)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 외 일본연극개론서로 김학현의 『일본의 전통 연희 3 : 분라쿠』(열화당, 1995)와 『일본의 전통 연희 4 : 가부키』(열화당, 1997)가 있다. 논문으로는 주신구라를 소재로 한 것과⁸⁰⁾, 의리와 인정, 효, 부부애, 여성상에 대해 고찰한 작품론⁸¹⁾과 임진왜란,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논문⁸²⁾, 한국연극과의 비교에 대한 논문들⁸³⁾이

79) 박상현 「서두수의 『만엽집(萬葉集)』번역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研究』 第39輯, 2011년 6월, p.224.

80) 이준섭 「通人の忠臣蔵についての論」 『일어일문연구』 (1997.5), 최경국 「江戸庶民에 있어서 忠臣蔵의 수용」 『박희택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3.8)

81) 명진숙 「近世戯曲 『国性爺合戦』에 나타난 효의 형상」 『일본연구』 (1993.2), 하윤희 「『国性爺合戦』에서 보는 여성상」 『일어일문학연구』 (1992.6), 「『心中宵庚申』考 : 半兵衛の夫婦愛について」 『김봉택교수정년 기념 일본학논총』 (1993. 3)

있다. 또한, 주로 세태물에 대한 논문이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소홀해지고 있었던 지카마쓰와 동시대 작가의 세태물에 대한 정밀한 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⁸⁴⁾ 번역물로는 최관의 『소네자키슌의 정사』⁸⁵⁾와 『주신구라』⁸⁶⁾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한국의 일본근세문학연구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회곡에 한해서 말하면,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부분에 착목한 논문들이 한국에서의 독특한 시각에 의한 논고라 볼 수 있으나, 최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미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 외 논문들도 분석대상인 텍스트 하나에만 주목하여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대상황과 역사, 사상, 장르의 특징 등을 염두에 둔 보다 넓은 시야에서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근세회곡작품들의 번역이 이루어져, 연구의 저변확대가 꾀해져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이상과 같이, 해외의 일본근세예능 연구현황에 대해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우키요에 속 가부키배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되었는데, 이후 일본의 미술품과 공예품을 중심으

82) 최관 「『本朝三國史』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1997.10), 박찬기 「唐人殺し 실록체소설의 생성」 『목포대논문집』(1995.12), 「歌舞伎唐人殺し 작품군에 대하여」 『일어일문학연구』(1991.12), 박려옥 「『南大門秋彼岸』의 「邯鄲之枕」考 - 「行列のからくり」を中心に-」 『일어일문학연구』(2011.5)

83) 양용길 「人形浄瑠璃と韓國の人形劇」 『일어일문학연구』(1979.12)

84) 줄고 「近松浄瑠璃における趣向としての歌謡・芸能」 『国語と国文学』(2003.1), 「近松の時代浄瑠璃に描かれた「執着」「執念」」 『国語と国文学』(2006. 2), 「近松の時代浄瑠璃における謎・難題の趣向」 『일본연구』(2006.

6) 등. 「『源義経将棋経』の構想」 『日本文学』(2003. 9)

85)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86) 민음사, 2002.

로 박람회를 통한 일본문화홍보가 이루어지고, 한편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미국 내 도서관에 일본도서가 다량으로 기증되어 일본학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2차대전시에 군사목적에 수행하기 위해 조직적인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일본연구를 위해 정보수집과 분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종전후 본격적인 일본근세연극 연구자가 되는 흐름이 있었다. 일찍이 1860년대에 일본연구를 위한 공적기관이 설치된 프랑스(국립동양어 학교에 일본어학과가 창설)와 달리, 영국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2차대전을 계기로 조직적 일본어교육이 시작되었다(런던대학 동양연구학원에서). 영국의 웨일리, 미국의 도널드 킨 등의 대표적 일본문학연구자는 전쟁을 통해 일본을 깊이 분석하게 된 케이스였다. 6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인상이 변화되어가는 시기로 종래의 '신기함'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본근세희곡(연극)을 외국문학(연극)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후 최근에는 가부키, 조루리를 현대연극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린니(Romulus Linney)가 지카마쓰의 영향을 받아 *The Love Suicide at Schofield Barracks*라는 남녀동반자살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든 것처럼, 서양에서는 일본고전예능조차도 더 이상 단순한 동양이국 문화로 보고 있지 않으며, 현대에도 충분히 공감 가능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연극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초기부터 수많은 번역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근세희곡작품을 접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연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형이 지적한 대로 아직도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자들은 일본연구자들의 방법과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⁸⁷⁾, 일본문학연구자만을 위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다분하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연구의 중복현상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일본고전예능에 대한 연구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서구의 연구의 착안점과 경향 등 연구현황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신의 연구의

87)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근세소설의 연구현황과 과제」『일본학보』(2005.2)

위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종덕, 「한국에 있어서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일어일문학연구』 45호, 2003. 5.
- 박상현, 「서두수의 『만엽집(萬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研究』 39집, 2011. 6.
- 이한섭, 『한국 일본문학관련연구문헌일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정형,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근세소설의 연구현황과 과제」, 『일본학보』, 2005.2.
- 伊井春樹, 『世界が読み解く日本-海外における日本文学の先駆者たち』, 学燈社, 2008.
- エルウィン・ベルツ 『ベルツの日記〈上〉〈下〉』 岩波書店、1979
- 岡本 嗣郎, 『歌舞伎を救ったアメリカ人』, 集英社、2001
- 武井協三, 「近松研究のこれから」『国文学-研究と教材の研究』(人形浄瑠璃と歌舞伎の劇場空間), 学燈社, 2002.
- 近松研究会, 『近松門左衛門』, 東京大学出版会, 1956.
- 近松研究所, 『近松の三百年』, 和泉書院, 1999.
- 近松生誕三百伍十年記念近松祭実行委員会, 『近松門左衛門三百伍十年』, 和泉書院, 2003.
- 中村哲郎 『西洋人の歌舞伎発見』, 劇書房、1982.
- 浜野保樹. 「GHQ機密報告書-検閲と日本演劇の現状」, 『歌舞伎研究と批評』, 2007. 2.
- 松崎仁, 『近松』(シンポジウム日本文学7), 学生社, 1976.
- 山口光朔訳, 『大君の都 中』, 岩波書店、1962.

❖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research situation of Early modern Japanese plays in overseas

Han Kyoung Ja

The academic world in Korea demand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researches at the mo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n research trends of Western countries.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discussions on early modern Japanese plays are developed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America. Also, it aims to consider and compare the present situation of researches on early modern Japanese plays in Western countries, Japan and Korea.

In Western countries, modern Japanese plays such as Kabuki and Joruri is accepted and enjoyed as universal plays of the world. It is not only because there is a background of enjoying plays such as Shakespeare's but also researches and translations are accumulated continuously from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main theme of researches was about Kabuki actors in Ukiyoe which was collected because of an interest in orientalism. After 1930s, Japanese arts and handcrafts were sent to art museums in America in order to promote Japanese culture. Also, many Japanese books were donated to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form institutes of Japanology. The war was started when the foundation of Japanology was about to be laid. Students who were interested in Japan were mobilized to the war as agents to understand Japan. After the war, those students started to do researches on Japan on a full scale. There were researchers such as Donald Keen who did researches on Kabuki and Joruri.

In western countries, there are researches on patterns of behavior and thoughts of Japanese people, comparison with Shakespeare's plays, dramaturgie, theatricalism as well as censorship of Kabuki during the war and mobilization of Kabuki to the wa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ere my researches are positioned in those research trends. It is also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overlapped and repeated researches of the same point of view and find out new research paradigms.

Key Words

일본근세희곡, 가부키, 조루리, 지카마쓰 몬자에몬

early modern Japanese plays, Kabuki, Jorui, Chikamatsu Monzaemon

논문접수일: 2011. 11. 15.

심사완료일: 2011. 12. 10.

게재확정일: 2011. 12. 15.